

## 東洋庭苑文化의 始源

— 숲과 돌, 물을 中心으로 —

The Beginning of the Orient Garden Culture Research  
on the Forest · Rock and Water

閔 庚 玟\*  
Min, Kyung Hyun

- I. 머리말
- II. 背景
  - 1. 立地環境
  - 2. 思想的 背景
  - 3. 自然觀
- III. 숲에서 由來된 文化
  - 1. 神壇樹와 神市
  - 2. 園苑의 發生
  - 3. 圃와 前栽, 뜰(庭, Garden)의 發生
  - 4. 蘇塗와 夫妻壇池
  - 5. 盤景

- IV. 바위와 돌에서 유래된 文化
  - 1. 祭壇, 神苑의 造營  
돌(苑, Park)의 發生
  - 2. 立石, 支石 및 磐境石
  - 3. 象徴화된 古墳樹石
  - 4. 實景화된 宮苑樹石
  - 5. 淨土峴(淨土寺苑)
  - 6. 自然風의 禪苑樹石
- V. 물의 文化(水景)
  - 1. 溝池
  - 2. 曲水形의 遺水
  - 3. 池塘
- VI. 맺는말

### I. 머리말

인간을 포함한 생물사회는 숲과 바위와 물,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끊임없이 공존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생물사회의 一員으로서의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지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國土의 保全(Conservation)과 保存(Preservation)의 균형을 유지하며 질서있고 풍요로운 인간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조선시대의 酋邦社會를 중심으로 하여 神林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늘과 땅의 섭리로 백성을 다스리면서 개발한 돌과 물과 나무의 文化를 살펴보고, 한민족의 고대문화가

중국과 일본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므로써 우리 문화의 우월성을 밝히고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되새기고자 한다.

### II. 背景

사람의 눈에 보이는 우주공간의 모든 물체와 귀를 통해 들리는 소리, 그리고 냄새에 이르기까지 근원없이 발생하거나 의미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인간이 개발하여 오랜 역사속에서 발전시켜온 문화도 주어진 땅을 기반으로 하여 쌓아올린 정신활동의 결정체로서 立地環境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나타낸다.

\*國土開發技術士(造景), 暎園大學校 理工大學 造景學科 教授

### 1. 立地環境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물이 맑아 예로부터 온 강산이 정원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금수강산'이라 예찬되어왔다. 우리나라 산의 평균해발높이는 482m로 구라파지역의 300m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지구상의 평균해발높이 825m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이같이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계곡과 강동의 水系가 잘 발달되어있고 난대에서 한대가 고루 분포되어 생물자원이 풍부하고, 春·夏·秋·冬 사계절이 분명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좋은 땅임에 틀림없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고생대에 속한 우리나라의 산은 花崗岩이 많이 분포되어 古代文明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돌을 매체로 한 巨石文化가 일찌기 싹트게 되었으며 돌을 素材로 한 세계적인 石造美術品을 남겼다.

靈山인 백두산을 위시하여 금강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수많은 산으로 에워싸인 한반도는 천혜적으로 山水景觀이 수려하여 三韓時代에는 神仙思想에 의한 풍류적인 생활문화가 보급되었으며 신라시대에는 花郎들이 名山大川을 순례하면서 人材를 양성하였다.

### 2. 思想的背景

우리나라의 古代社會에서는 해, 달, 별 등의 天界物과 나무, 물, 바위 등을 신성시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 酋邦社會가 형성되면서 天界를 관찰하는 占術家가 등장하여 天體와 地體의 섭리와 상관성을 밝혀 陰陽思想이 싹트게 되었다. 이는 天·地·人의 三才思想으로 이어지고 數理思想과 風水思想을 낳게 되었다. 단군조선시대에 발생한 神敎는 仙敎로 발전되어 神仙思想이 보급되었으며 기원전 5세기 경 三韓地方에서는 신선풍의 생활 풍속이 성행하였다. 이같은 신선사상은 중국으로 건너가 不老長生과 관련된 많은 전설을 남겼으며 유교와 불교 등의 우주관과 중국의 토속신앙이 결합되어 道敎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三國時代에는 佛家思想과 儒家思想이

도입되어 한민족의 생활문화 패턴이 달라졌으며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문화의 영향권에 들게 되었다.

### 3. 自然觀

고대 한민족의 생활철학은 天, 地 즉 自然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과 더불어 낭만적이고 順天的인 자연관을 고수하며 生物社會의 一員으로 共存하면서 자연과 동화된 자연풍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자연풍의 山水畫가 발달되었고, 생활문화인 도자기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문양이나 기하학적 모양은 찾아볼 수 없고 수려한 산수경관, 꽃, 나비, 나무, 풀 등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소재로 한국적인 멋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건축의 배치는 자연의 풍속에 슬며시 파고들어 주변 여건 특히 산의 형태와 조화되게 하면서 세부적인 의장기법은 우주의 기본섭리인 陰陽思想을 최대한 응용하고 있다.

뜰과 들의 양식에 있어서도 가능한 자연 그대로를 뜰에 도입하여 시각적인 감상 외에 새소리, 물소리, 벌레소리를 집안에서 감상하고 嗅覺, 觸覺, 味覺을 통하여 마음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고유의 자연풍경식으로 발전시켜왔다.

「십년을 경영하여 초가 삼 칸 지어 내니/나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 두고/강산은 들일 때 없으니 돌려 두고 보리라.」

이 시문은 조선시대의 문인 송순이 지은 것으로 자연주의적인 생활양식이 잘 묘사되고 있다.

또 「靑山도 절로 절로, 綠水도 절로 절로/산도 절로 절로, 물도 절로 절로/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 하리라.」는 金麟厚(1510~60)의 自然歌에서도 한민족의 無爲自然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Ⅲ. 숲에서 由來된 文化

《三國遺事》의 〈古朝鮮記〉에 의하면 한국민족의 시원적 국가가 神壇樹와 함께 태백산에서 시작되었으며 三韓時代의 沃沮는 만주어로 숲을

뜻하는 '와지'로 불리었다.

또한 옥저에 이어 나타난 新羅의 국호가 鷄林이며 始祖의 성이 '朴'으로 점을 치는 나무라 풀이되고 삼국시대의 금관에 새겨진 出字形 장식도 나무의 기하학적 도형이며 사찰에 세워진 탑도 나무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고구려의 왕명을 보더라도 山, 川, 林, 原과 같은 산림의 뜻이 담겨져 있어 고대사회의 문화는 숲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 神壇樹와 神市

한국의 상고사는 神政社會에서 시작되었다. 《三國遺事》에서 桓雄은 3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風伯, 雨師, 雲師와 함께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神市를 경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신단수와 神市는 종교적인 사원의 일종으로 四家作區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농업용 관수시설인 溝洫[물도랑]을 준설하고 논밭 사이에는 농로[田陌]를 개통하여 농업과 잠업을 권장하고 목축을 널리 보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檀奇古史》에 의하면 동네마다 天壇을 만들었으며 제 11대 단군 道奚(B.C. 1891)는 名山에 國仙의 蘇塗와 大始殿을 건축하고 주변에 박달나무(檀樹)를 심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고대 성왕들의 개국설화속에 나타난 숲과 나무를 신성시했던 이유는 엘리어드(M. Eliade)가 말하였듯이 숲은 생명의 원천이며 나무는 부풀어나는 우주에너지의 신비성을 상징하는 기호이자 종교적인 성역과 관련되어 있어 숲을 주관하는 자는 곧 天君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단수와 같은 나무는 神殿의 대명사로 통용되었다. 그 후 나무는 문명이 발달되면서 상징적인 구조물로 변하는데 기원전 2221년 경 稻田이 생겨난 후 別邑마다 큰 나무를 세워 蘇塗를 만들고 근처에는 학당인 廡堂을 지어 미혼자제를 모아 활쏘기, 말타기, 예절, 독서, 기악, 검술 등 六藝를 가르쳐 문화가 급속히 발전되어

당시 동양문화의 중심지로서 중국과 일본 등의 고대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2. 圃苑의 發生

우리나라의 上古史 중 《太白逸史》의 〈神市本紀〉에 의하면 桓雄天王이 雨師인 玉綿으로 하여금 건물을 짓게 하고 수리, 돼지, 소, 말, 호랑이 등을 모아 길들이게 하여 목축을 권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단군조선시대에 산골짜기에 동물을 놓아 길러 수렵장으로 활용한 圃苑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단군 제 10대 魯乙元年(B.C. 1950)에는 규모가 큰 넓은 圃를 조성하여 외국에서 희귀한 동물을 수입하였으며, 제 26대 離魯王 乙卯年 7월에 白岳山 계곡에 흰사슴 2백마리가 떼지어 놀았다는 기록 외에도 登岫王 壬寅 16年(B.C. 874)에는 上苑에 기린떼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또 중국이 史書에 나타난 고조선시대의 기록에는 동이가 점성술, 풍악, 연금술, 사냥, 의료행위와 관련된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東夷人의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제사나 축제 등의 '의례'를 치르기 위한 특수층의 巫俗의 인 풍속으로 볼 수 있다.

옛날 만주지방에서 부르던 巫俗의인 神歌가 전하여지고 있는데 이는 사냥에서 돌아오지 않는 왕자의 혼을 구하기 위한 무당의 굿노래라고 한다. 여기에서 오르테가(Jose ortegay Gasset, Sovre Lacaza, 1943)가 지적한 것처럼 왕자의 사냥의 귀족의 정신적 수련을 위한 특수성과 관련되며 巫俗에서도 사냥은 사면수업을 위한 의례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사냥에서의 '명포수'는 진리(분수)를 터득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으며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냥굿'에서는 내기의 장면이 나온다. 포수들은 자신이 잡은 짐승의 내장을 드러낸 다음 몸통을 재빨리 삼지창에 걸어 넘어지지 않게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몸 전체가 갖는 중력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명포수는 자(尺) 없이도 동물의 중심점을 한 눈에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당시에 사냥의 행위가 비례(人)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내기 때에 '삼지창'이 쓰이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사냥이 단순한 식량 확보를 위한 노동행위가 아니라 인체와 우주가 하나라는 신비를 파악 하는 仙敎의 인 업숙한 祭儀上의 한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선사시대의 岩壁畵와 삼국시대의 고분벽화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냥도'에서도 그 내용이 종교적인 의례와 연관되어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道'를 닦기 위한 圃苑의 發生時期는 중국의 경우 周나라 惠王(B.C. 671~B.C. 52) 代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가 1,300여 년이나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국에서와 같이 귀족 사회 중심으로 운영된 것만은 아니고 무속신앙에서 일반 수도과정으로 행하여졌으며, 고조선시대의 교육시설인 扁堂에서 이수하는 필수과정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이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다.

### 3. 圃와 前栽, 뜰(庭, Garden)의 發生

부족사회에서 족장사회로 발전하면서 지배계층이 생겨나게 되고 영농의 발달로 빈부의 차가 생겨나 부족간의 분쟁이 발생되어 방어목적의 성곽이 등장하게 되었다.

遼寧省 東八家 유적에서는 돌을 쌓아 꾸민 성곽의 터가 발견되었는데 남북의 길이가 160m나 되고 동서의 길이도 140m에 이른다. 성곽 안에는 원형의 일반 집터가 57개소나 되며 그 중앙에는 사방 40여 m에 이르는 대형 건물터가 발굴되었다.

이같은 대형 건물터가 발견된 사실에서 종교적인 전문가의 출현과 부의 축적으로 인한 지배계층이 등장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집터 주위의 넓은 뜰에 희귀한 약용 및 식용식물을 가꾸는 채원인 圃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곳에서는 女神廟와 積石塚이 발굴되었는데, 부족사회에서 등장된 祭壇石과 立石, 그리고 支石 등 돌만으로 꾸며진 간소한 神苑과 달리 건축적인 神殿인 女神廟가 등장되므로서 앞뜰에 키가 낮은 사스레피나무와 같은 神木을 심은

前栽가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神苑에 神木을 도입하게 된 것은 돌과 함께 나무를 신성시한 고래인의 신앙의 표상이며 그 곳에 신이 깃들게 하려는 의지력의 표현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족장사회로 접어들면서 성곽이 등장하고 神苑의 규모가 커지면서 건축적인 神殿이 생겨났으며, 지배계층을 위해 주거공간이 대형화되고 뒤뜰에 구황식물을 가꾸는 채원이 중심이 된 뜰(庭)이 발생된 것으로 해석된다.

### 4. 蘇塗와 夫妻圃池

《三國志》〈東夷傳韓〉에 보면 「天君의 나라에는 別邑이 있어 이를 소도라 하며 소도를 세운 뜻은 불가에서 짚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高裕變은 소도는 仙敎(神敎)의 성역을 뜻하는 것으로 인도의 'Stupa'와 같은 종교적인 축조물이라 하였다. 소도는 山川에 제사하던 성역으로 매년 한 두차례 각 읍별로 祭主인 天君을 선발하여 제사를 지냄으로서 질병과 재앙이 들지 않게 기원하였다.

이같은 소도의 꾸밈새는 《後漢書》에서 「立蘇塗 建大木」이라 기록하고 벌읍 속에 큰 나무를 세워 가지에는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기는 중심적인 구건물라 하였으며 孫普泰의 설에 의하면 소도는 솟대(立木)의 음역이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산간 마을 입구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東夷의 풍속 중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향아리 속에 벼이삭과 보리이삭을 나란히 꽂아 놓고 신을 섬기는 부루단지가 있다. 부루라는 말은 부풀어 난다는 뜻으로 여름에 수확하는 보리는 양을 상징하고 벼는 음으로, 향아리 속의 음과 양이 相克의 변화를 일으켜 핵에너지의 확산현상과 같이 불어 남을 상징한 것이다. 이같은 부루단지가 당시 동이의 실내 제단이라면 소도는 옥의 제단이자 신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부루단지는 '一析三極'의 理氣의 변화상을 造形化한 꽃꽂이의 始源을 이룬다.

## 5. 盤 景

盤景은 盆위에 나무와 돌을 심어 山水景觀을 縮景化한 것으로 백제 중기에 개발되어 6세기 일본으로 건너가 귀족사회에서 애용되었는데, 이를 「箱庭」이라 하였으며 平安時代 이후 일본의 縮景式 庭園을 낳게하는 원류가 되었다.

### IV. 바위와 돌에서 유래된 文化

지구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바위는 그 형상이 다양하고 웅장하며 영구불변의 고체라는 점에서 '常磐'이라 불리워 왔으며 그 속에 神이 머문다 하여 古典에서는 '磐座'라 기록되어 있다.

일찍이 중국의 敍亮之는 「東夷領域之有大石文化」라 하여 巨石文化가 동이문화의 특징이라고 《中國事前史話》에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한글학회에서 발간된 《지명총람》 20권에 나타난 바위와 돌이름을 1978~1980년까지 2년에 걸쳐 조사한 바 있는데 바위이름의 총수가 14,712개소이며 그 종류수가 455종으로 분류되었다. 그중 생활 및 풍속과 관련된 바위이름이 136종 4,24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의 이름이 98종 3,954개소, 사상과 신앙 50종 1769개소, 바위의 형상 36종 1,756개소, 인체, 애정, 신분 등 인간과 관련된 것이 79종 1,682개소, 자연현상 17종 698개소, 식물 15종 238개소, 방위 2종 58개소, 역사성 11종 51개소, 고분 1종 40개소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바위이름의 개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선바위(立石, menhir)로 639개소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호랑이 바위로 556개소이었다. 이같은 바위이름 중에서 정원문화의 사상적 배경에 관련된 것으로 자연숭배사상을 비롯하여 음양 및 삼재사상, 신선사상, 유교와 불교에서 유래된 바위이름 등이 있는데 그 중 토속신앙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으며 불교, 수리 및 숫자, 신선사상, 미신, 무속신앙, 유교의 순이었다.

지명에 나타난 바위를 原景으로 하여 정원경관으로 발전된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선바위는 立石으로, 납작바위는 祭壇과 基壇石으로 병풍바위는 담장과 성곽으로, 등장바위는 庭隙臺, 촛대바위는 石燈으로 샘바위는 石泉과 石池, 물통바

위는 石槽, 외돌끼는 水中岩島, 흠바위는 曲水池, 팽바위와 널바위는 디딤돌과 拜觀石의 原景이라 볼 수 있으며 太古臺, 月臺라 일컫는 경승지의 바위 주변에는 많은 별서정원이 들어서 있다.<sup>2)</sup>

1. 祭壇과 神苑의 造營—들(苑), park의 發生  
하늘과 땅의 媒體空間(Intermediate Space)을 조성하기 위해 돌을 수평으로 눕혀 拒石型의 제단을 꾸미고 그 주변을 성역화하여 '祭天儀式'의 場으로 개발한 들(苑)의 시작은 혈연 및 통혼관계의 집단이 부락을 이루어 정착생활을 하게 된 부족사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초기 유적이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과 부포리 덕산에서 발굴되었으며, 遼寧省에서는 沙窩子 유적과 紅山 유적이 瀋陽에서는 新樂 유적, 요동반도에서는 小珠山 유적이 각각 발견되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터의 발굴과 함께 질그릇과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석기 중에는 곡물을 가공하는 공구의 일종인 '갈돌판'과 '갈돌봉'이 있었으며, 넓은 平石으로 된 제단석도 함께 발굴되었다. 이같은 제단석은 인간이 하늘과 땅에 제를 올리는 역할을 하였고, 질그릇은 물 또는 제물을 담아 두거나 祭儀上의 상징물로 쓰였으리라 생각되며, 이 유적들의 연대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7~8천년 전의 초기 신석기시대로 추정된다.

### 2. 立石, 支石 및 磐境石

선사시대의 부족사회가 점차 발전되어 농경생활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주거지가 대형화되고 집단화되면서 서서히 옥외공간을 꾸미게 되었다. 초기에는 돌을 주소재로 하여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인간의 사상과 실용적인 기능을 충족시키고 한민족의 의지력을 표상하는 樹石技法이 개발되어 세계적으로 뛰어난 巨石文化를 낳게 되었다.

부족사회 초기에 등장된 제단석에 이어 마을 입구와 부계를 표시하기 위한 선돌(立石, menhir)과 死者의 분묘이자 부족들의 성역으로 쓰인 고인돌(支石, Dolmen)이 출현된다. 전자인 선돌

바위이름의 類型 및 種類別 頻度(總括)

유형	종류			출현개소수	총수		적요
					총수	유형별종수	
암의 形象	크기	3	120	0.82	6.83		
	형태	27	1,308	8.89	74.49		
	색깔	6	328	2.23	18.68		
	소계	36	1,756	11.94	100.00		
人 間	신분	11	252	1.71	14.98		
	호칭	24	671	4.56	39.89		
	성별	14	409	2.78	24.32		
	인체	22	257	1.75	15.28		
	애정	3	66	0.45	3.92		
	생리	4	26	0.18	1.55		
	이름	1	1	0.01	0.06		
소계	79	1,682	11.43	100.00			
思 想	수리및숫자	12	277	1.88	58.69	음양 및 삼재사상 포함	
	문자	1	1	0.01	0.21		
	신선	4	171	1.16	36.23		
	유교	2	23	0.16	4.87		
	소계	19	472	3.21	100.00		
信 仰	미신	5	132	0.90	14.39		
	토속신앙	6	751	5.10	81.90		
	무속신앙	1	34	0.23	3.71		
	소계	12	917	6.23	100.00		
宗 教	불교	15	379	2.58	99.74		
	기독교	1	1	0.01	0.26		
	소계	16	380	2.59	100.00		
古 墳 (陰宅)	관돌(고인돌)	1	40	0.27	100.00		
	소계	1	40	0.27	100.00		
生 活  및 俗 風	뜰(뜰)	4	356	2.42	8.38		
	의생활	14	688	4.68	16.20		
	식생활	23	343	2.33	8.07		
	주생활	10	470	3.19	11.06		
	장식및장신구	14	625	4.25	14.71		
	도구	34	633	4.30	14.90		
	침구류	6	93	0.63	2.19		
	풍속	3	242	1.64	5.70		
	놀이	17	306	2.08	7.20		
	교통및운반	11	492	3.34	11.58		
소계	136	4,248	28.87	100.00			
歷 史 性	표암	11	51	0.35	100.00		
	소계	11	51	0.35	100.00		
方 位	동양	2	58	0.39	100.00		
	소계	2	58	0.39	100.00		
動 物	조류	25	1,057	7.18	26.73		
	포유류	25	1,702	11.57	43.05		
	상동물	3	407	2.77	10.29		
	극피류	2	28	0.19	0.71		
	파충류	3	333	2.26	8.42		

유형	종류	출현개소수		
			총수	유형별중수
	양서류 2	172	1.17	4.35
	어류(바닷물) 12	29	0.20	0.73
	어류(민물) 6	40	0.27	0.73
	어류(계) 18	69	0.47	1.75
	갑각류 2	4	0.03	0.10
	곤충류 7	109	0.74	2.76
	연체동물 8	45	0.31	1.14
	기타 3	28	0.19	0.71
	소계 98	3,954	26.88	100.00
植 物	균류 1	55	0.37	23.11
	초본 4	25	0.17	10.50
	목본 4	29	0.20	12.18
	대나무류 1	43	0.29	18.07
	수생식물 4	36	0.24	15.13
	꽃 1	50	0.34	21.01
	소계 15	238	1.62	100.00
自然現象	땅(地界) 3	3	0.02	0.43
	하늘(天界) 7	528	3.59	75.64
	물(永界) 6	101	0.69	14.47
	기타 1	66	0.45	9.46
	소계 17	698	4.74	100.00
其 他	둥둥바위 外 13	216	1.48	100.00
	소계 13	218	1.48	100.00
總 計	455	14,712	100.00	

은 平石狀의 제단석과 달리 立石形으로 마을어귀에 두 개의 선돌을 세우는 경우와 하나의 돌을 세우는 單石型등이 있다.

고인돌은 그 꾸밈새에 따라 北方型과 南方型이 있는데 북방형을 기준하여 그 꾸밈새를 설명한다면 두 개의 支石을 땅에 세운 후 하나의 板石을 씌운 天一, 地二에 의해 세 개의 돌로 축조되어 있다.

필자가 1984년에 전남 승주군 송광면 월하리 대나무 숲속에서 두 기의 지석묘 사이에 1.1~1.5m 크기의 9개의 平石을 列狀으로 심어 놓은 磐境石을 발견하였는데 지석묘의 북서쪽에 경계를 설정하여 묘역을 성역화한 것으로 성곽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에 발생된 제단석과 선돌, 고인돌과 반경석의 꾸밈새를 비교하여 보면 제단석은 그 형상이 一뿔이고 땅을 상징하며 음에 해당되고

수리적으로는 二로 해석되며 그 수법으로 보아 拒石의 개념에 속한다. 그러나 선돌은 ①型으로 하늘을 상징하고 陽이자 수리적으로 一에 해당되고 하늘을 향해 땅에 돌을 세운 수법으로 立石에 속한다. 초기 선돌의 형상에 立柱形의 자연석을 그대로 세웠으나 인지가 발달되면서 돌에 사람의 눈, 코, 입을 표현하고 모자를 씌운 형상으로 凝人化되었고 후에 성기화되면서 토속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었으며, 장승, 성황당으로 변천되었다.

陰宅의 일종이자 고대인의 성역으로 쓰인 고인돌은 巨石記念物로서 陰性의 제단석(平石狀)과 陽性의 선돌 두개를 복합시킨 음양화합형의 구조물로서 支石이라 통칭되어 왔으며 天, 地, 人의 三才를 상징화한 한민족의 始源文化의 일종이다. 이들은 모두 우주의 질서와 섭리를 본떠 신앙을 목적으로 꾸민 성역적인 공원(公苑)의 중심

경물이다. 그 발생순서를 보면 먼저 음성적이고 平面型의 계단석이 등장된 다음 하늘을 향해 양성화한 立石型의 선돌로 발전되고 마침내 음양 화합형의 중용적인 고인돌로 발전되었으며 이들을 列狀으로 에워싼 禁域의 상징물인 磐境石이 등장되었다. 그 변천과정에서 처음에는 평석으로 땅을 덮어 하늘과 땅의 매개체로서의 음성적인 수법을 택한 것은 地母說에서와 같이 땅을 중요시한 겸허한 접근자세로 보아지며 땅을 다스린 후에 하늘로 치솟는 陽性的인 수석기법으로 발전되고 凝人化하면서 토속신앙화되었다.

### 3. 象徵化된 古墳樹石

지금의 경북 고령읍에는 삼국시대의 大伽倻의 궁성터가 남아 있으며 뒷산인 主山에는 대가야 초기 고분이 있다. 해발 283m에 있는 통칭 48호 고분의 크기는 직경 26m, 높이 6m의 타원형 토분으로 동쪽과 서북쪽에서 樹石群이 발견되었다.<sup>3)</sup>

고분의 동쪽 봉분사면에는 세 개의 龍象石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고 그 아래 평지에 30개의 龍象石 일부가 지면에 노출되어 있고 서북쪽에는 15개의 龜形石이 수석되어 있다. 33개의 용상석 중 19개가 용상석이고 그밖의 돌은 용머리와 등과 같은 龍象의 일부가 지상에 노출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고분의 서북쪽 사면에는 大形龜形石(길이 163cm, 폭 72~145cm)을 중심으로 좌우에 龜石이 수석되어 있다. 동쪽의 龍象石과 서북쪽의 龜形石의 좌향은 모두 개국성산인 가야산을 향하고 있으며, 동쪽의 龍象石의 경사도가 21°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기세가 잘 나타나 있고 북쪽의 거북돌은 17°로 가야산을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고령 지산동 고분수석군은 2~3세기 경 축조된 것으로 生과 死, 소우주와 대우주, 음과 양을 상징한 呪術的인 세계관을 나타낸 세계 최고의 수석작품이며 日本의 唐山水式庭園양식의 원류를 이루고 있음이 일본에서 개최된 제 23차 IFLA 세계대회(I, F, LA WORLD

CONGRESS JAPAN, 31, MAY 1985)에서 발표한 바 있다.

### 4. 實景化된 宮苑樹石

하늘과 땅과 인간과의 매개적인 성역화에서 시작된 우리 고유의 樹石文化는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연의 산수경을 모티브로 하여 궁원안에 인공으로 자연암경을 꾸미는 實景樹石이 개발되었는데 석기 927년에 조성한 고구려의 安鶴宮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총면적이 384,400의 m<sup>2</sup>에 달하는 안학궁의 남궁 주변 4만여 m<sup>2</sup>의 궁원에는 자연형 연못이 있고 연못 북쪽 언덕 조산면에 野山形의 岩景이 발굴되었으며 中宮의 中庭에는 형상이 뛰어난 景石이 장식용으로 置石되고 北宮 뒤뜰(약 8,000m<sup>2</sup>)에는 금강산의 만물상을 상징한 돌산터가 발굴되었다.

### 5. 淨土峴(淨土寺苑)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울산바위 아래 縱祖岩 서쪽언덕에서 淨土峴이 발견되었다.<sup>4)</sup> 이정토현은 서기 654-655년 경 元曉大師가 조성한 것이다.

정토현의 꾸밈새를 보면 언덕 상단에 세 개의 돌을 세워 三尊佛을 상징화하여 中心岩景을 이루고 있으며 이 곳에서 63m 아래쪽에 원형의 중심석이 심어져 있고 다시 13m 내려가면 40여 개의 크고 작은 자연석을 쌓아 올려 높이 3.9m의 돌산(四十八願石山)이 조성되어 있다. 이 돌산 서쪽 모서리에는 두 단의 계단석이 놓여 있고 그 양쪽에 난간석이 심어져 苑路와 연결되고 있다. 계단석을 따라 5m쯤 다시 낮은 언덕으로 내려가면 원로 서쪽에 세 개의 반석이 놓여 있다. 그 중 가장 큰 타원형의 돌 표면에 '淨土峴'이라 음각되어 있고 이 바위의 좌향에 따라 시선을 맞추면 千佛洞의 仙景이 조망된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면 원로 동쪽에 三山石이 놓여져 있으며 이들 세 돌의 좌향에 시선을 맞추면 건너편에 웅장한 達磨峰이 하늘 높이 솟아 보인다.

언덕 위쪽에 있는 三尊石에서 이 곳 三山石까



지의 거리가 105m로서 중심석이 자리한 지점과의 거리비는 3:2의 黄金比가 성립되고 수석경관이 南北軸線上에 놓여져 있다.

이와 같은 三尊樹石을 포함한 정토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굴된 것으로 삼존석의 중앙석이 아미타불을 상징하고 하단부의 40여 개의 돌산은 정토교의 經典인 《無量壽經》에 기록된 「四十八願」을 상징한 것이며 三尊石이 인체의 머리에 해당된다면 중심석은 배꼽에 해당되고 三磐石과 三山石은 발에 해당된다.

계조암의 정토사원은 영구히 보존될 돌을 素材로 하여 불교의 우주관과 정토관을 상징화한 귀중한 수석유적이다.

#### 6. 自然風의 禪苑樹石

삼국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禪宗佛敎의 영향을 받아 가람공간 외곽 아늑한 숲 속에 꾸민 선원은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의 禪定寺 禪苑(653년 조성)을 비롯하여 전북 남원의 實相寺 禪苑, 강원도 춘성군의 文殊院 禪苑(3곳), 전남 해남의 一枝庵 禪苑 등 여섯 곳에서 발굴되었다.<sup>5)</sup>

우리나라 禪苑의 꾸밈새는 일본의 담장 안에 꾸민 선원과 달리 無爲自然의 자연풍경식으로 塋禪石을 중심으로 樹石群과 人工石山이 시각적인 對景을 이루고 좌우측에 흐르는 계류에는 폭포를 조성하여 聽覺的인 添景으로 삼은 水景이 등장되는 점에서 그 특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V. 물의 文化(水景)

생명의 원천인 물은 「地之血氣」라 하여 始原性과 生動性, 流動性, 透視性, 變態性, 投影性, 發音性, 永遠性 등 다양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같은 물은 우리 인간이나 동물과 식물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물의 날'을 정하여 그 고마움을 되새기고 있다.

뜰과 들을 꾸미는 데 있어서 돌, 나무와 함께

三大素材의 하나인 물의 활용형태를 옛 정원문화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溝池

부족사회에서 족장사회로 발전되면서 부의 축적과 지배계층의 출현으로 성이 축조되고 성 주위의 성곽 바깥쪽에 물을 도입하여 흐르고 고이는 溝池가 개발되었는데, 삼국시대에는 좀더 규모가 큰 垓字로 발전되었다.

이는 최근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한 경주 月池부근의 건물터에서도 발굴된 바 있다.

#### 2. 曲水形의 遺水

고구려 동명성왕릉에 있는 陵寺 주변의 민가터에서 물도랑의 곡수부에 돌을 심는 곡수형의 遺水가 최근 북한에서 발굴되었는데 자연스러운 계류를 뜰에 도입한 水景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池塘

池塘은 우리나라 정원의 三大類型의 하나인 林泉庭園의 중심경물이다.

池塘은 못과 저수지를 통칭한 것으로 池와 塘은 그 꾸밈새와 기능이 서로 다르다.

'池'는 '穿地通水'의 개념에서 출발된 것이며 물의 생태적인 특성에 알맞게 일정한 형태로 고이게 하면서 입수와 배수량을 조절하여 신선한 물을 고이게 함으로써 수생식물과 물고기를 기르는 못을 뜻하며 '塘'은 鑿地注水 陂也堤岸'이라 하였듯이 물을 저장하기 위해 둑을 쌓아서 만든 用水池의 일종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축조한 규모가 큰 못과 저수지가 여기에 속한다.

현재 남아 있는 사적으로 부여의 宮南池와 경주의 月池(안압지) 등이 있으며 이보다 앞선 것에는 최근 발굴된 고구려 안학궁의 못 외에 大聖山城내에서 수십개소의 못이 발굴되었다.

이들 옛 못의 특색으로는 궁남지는 못안에 봉래산을 꾸며 신선풍의 水景을 개발하였으며 경주의 월지에는 2단의 폭포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폭포처리는 동양권에서는 가장 먼저 개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지는 신선사상과 불교적인 정토신앙을 상징하고 있으며 호안처리에서는 바다의 기암절벽을 연상케하는 實景的인 樹石景을 볼 수 있다.

## VI. 맺는 말

우리 나라는 산으로 이루어진 숲의 나라이다. 한민족의 古代文明은 숲에서 시작되어 고유의 神殿文化와 神市를 개척하여 돌과 물의 문화가 일찍이 개발되었다. 숲이 帝王이라면 돌은 제상이고 물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들 三才가 유기적인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 동양문화의 기반인 음양사상, 礎石思想, 風水思想을 발전시켜왔으며, 神仙風의 生活文化를 낳게 되었다.

기원전 5,000년 전의 巨石文化를 위시하여 기원전 4,300여 년 전의 神市, 蘇塗, 夫妻壇池,

溝池, 扁堂, 기원전 1950년 전의 大圃 등은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先進文化로서 동물을 길러 수렵장으로 사용한 圃苑의 경우 외국의 희귀동물까지 도입하여 인재를 기르는 과정의 道場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서 당시 우리 문화의 우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한민족의 뛰어난 始源文化는 중국으로 건너가 크게 발전되어 동양문화의 核을 이루게 되었으나 한민족은 차차 남쪽으로 밀려 三國時代 이후에는 중국의 정치적인 영향권에 들어 우리 고유의 문화는 차츰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 金教獻, 《神壇民史》, 호뿌리, 1986.
2. 閔庚瑛, 「地名에 나타난 바위이름의 類型考察 및 庭園文化에 미친 影響」, 韓國庭苑學會誌 第7卷, 1989: pp.1235.
3. 1980年 10月 저자가 발견하였으며 84年 11月 日本造園學會의 專門家 25名과 韓·日 共同 심포지움을 위한 現場踏査를 한 바 있음.
4. 1984년 저자가 발견한 우리나라 唯一의 정토사원임.
5. 저자에 의해 1980~86년 사이에 조사 발굴된 것으로 韓國庭苑學會誌 第5권에 「韓國禪苑의 景觀構成과 類型」으로 위어 발표되었음.